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2월 첫 번째 29권 3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육군항공학교, 미군에 휘장 수여
안보초빙강연

3면 군관련 소식

원송이의해 갑신년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6면 기획 기사

러일전쟁 100주년

7면 카투사 기고문

한진이와조던의 한국여행기

8면 안녕하세요

서민정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3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77경리대대 선임병장, 백선엽 장군상 수상



Margaret Banish-Donaldson /Area I PAO

윤현웅 병장이 캠프 케이시 모드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한미군 시설관리소장 John Macdonald 준장으로부터 백선엽장군상을 수여받고 있다.

1월 12일 캠프 케이시에 있는 모드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177 경리대대 선임병장 윤현웅 병장은 주한미군 시설관리소장 John Macdonald 준장으로부터 백선엽 장군상을 받았다.

Macdonald 준장은 "백선엽 장군상은 미 8군에 복무하는 가장 뛰어난 상병이나 병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며 "이 상은 지도력과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상병에서 중사 계급의 하사관

에게 수여하는 미국의 Sergeant Morales 상과 같은 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중 2002년 입대한 윤병장은 2001년 5월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에 한번에 합격한 경력이 있으며, 선임병장직을 수행하기 전 B 중대 출장계에 있는 동안 대대와 여단에서 모두 분기 카투사 상을 받기도 했다.

177경리대대의 Stephen Libert 주임원사는 윤병장을 이렇게 평가했다.

"윤현웅 병장의 뛰어난 지도력을 보고 그를 우리의 다음 선임병장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임병장이 되기 위해 그는 PLDC(03-09기)를 이수했는데, 여기서 수석으로 졸업(Distinguished Honor Graduation)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병사에게나 훌륭한 일이지만,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이러한 영예를 얻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의 이러한 업적으로 Libert 주임원사는 윤현웅 병장을 백선엽 위원회에 추천했다. 그는 다른 4명과 경쟁했고, 유일하게 이 상을 받았다.

"이 상의 수여자는 5명의 선임 부사관들에 의해 다음의 주제 - 백선엽 장군의 전기, 지도력, 응급 처치, 화생방 훈련, 군사 훈련, 대한민국군의 지시, 한국전쟁, 카투사 과정과 안전교육-에 대해서 세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Macdonald 준장이 덧붙였다.

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수상자는 메달과 함께

카투사 중 가장 뛰어난 NCO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받는다.

Libert 주임원사는 "선임병장으로 일을 하면서, 윤현웅 병장은 다른 카투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우리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했으며 또한 병사들을 위한 카투사 후원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동두천 여자중학교와 함께 좋은 이웃 계획 실현의 선두에서 있다"고 말했다.

윤현웅 병장은 백선엽 장군이 자신에게 준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전 당시 다부동 전투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던 백장군은 한국군이 맡고 있던 봉우리를 빼앗기자 미군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또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위해 앞장서서 돌격을 이끌었고, 결국 언덕도 되찾고, 신뢰도 얻었습니다. 저는 미군과 카투사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이 한 팀을 이룰 때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대에서 그같은 신뢰를 쌓아 나가려 합니다."

그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역 전까지 계속 영어를 가르치고 카투사들에게 조언도 해 주면서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히며, "편한 것만 찾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남는 게 있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했다. ■



카투사 신문 열매장

TOUCHDOWN! 2월 2일 제 38회 슈퍼보울 행사를 맞아 용산 메인포스트 클럽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 날 경기에서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가 접전 끝에 캐롤라이나 팬더스를 32 대 29로 이겨 우승하였다.

한국군의 날개를 단 17 항공여단

한반도 내 군복무 기간동안 한미연합 작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육군의 항공 능력을 한층 발전시킨 공로로, 6명의 17항공여단 지휘관들이 명예 조종사 휘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달 27일 논산에 있는 육군 항공 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명예 휘장 수여식은 항공학교장 김응수 소장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날 휘장을 받은 주인공들은 17항공여단 지원대장 김지택 소령의 추천을 받았다.

17항공여단 52연대 1대대장 Hodges Anthony 중령과 1대대 C 중대장 Brian Mackenzie 대위, 17항공여단 164 항공관제단장 Eric Johnson 중령, 17항공여단본부 참모장 Kelly Peitz 소령과 안전장교 George Arzente 준위, Daniel Creed 전 주임원사가 바로 그 주인공.

휘장 수여 자격요건에 대해 김지택 소령은 "17항공여단 지휘관들 중 한국에 2년 이상 근무하고, 한반도 내에서 상당 기간 비행 경력이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만 휘장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의 휘장은 한미 연합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의 항공 능력을



카투사 신문 장승모

수상자들이 일렬로 서있는 가운데 17 항공여단 본부중대 George Arzente 준위가 육군 항공학교장 김응수 소장으로 부터 휘장을 수여받고 있다.

증대시켜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 날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날 행사의 주인공이자 지난 달 31일

로 군생활을 마감한 Creed 전 주임원사는 수상식이 끝난 후 "평생 군에 몸담아왔지만 외국군으로부터 항공 휘장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미군들이 이러한 휘장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Kelly Peitz 소령 역시 "한국군이 주는 휘장은 우리 미군들이 군복에 착용할 수 있는 외국군 휘장들 중 몇 안 되는 휘장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미 양국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해 수상 소감과 함께 한미 양국의 투철한 동맹 관계를 강조했다.

수상식이 끝난 후 이날 휘장을 수여받은 주인공들은 김응수 소장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를 가졌다. 다과회가 이어지는 동안 이들은 육군 항공학교의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한미 양국 항공부대 지휘관들 사이에서 양국의 육군 항공 체계를 주제로 한 대화도 이루어졌다.

이 날의 모든 일정은 "한미 양국의 돈독한 동맹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뛰자"는 김응수 소장의 말로 끝을 맺었다. ■

상병 장승모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식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색청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과는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 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8376/4681임. 모든 글은 용산구 채신정 직영 우체국 서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angbys@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프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근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강병삼
- 기자
- 상병 장승모
- 일병 김택현
- 이병 염태성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Steven A. Boylan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Mary J. Constantino
Editor
Sgt. Kang, Byung-sam
Staff Writers
Cpl. Jang, Seung-mo
Pfc. Kim, Taek-hyun
Pvt. Yum, Tae-sung
Special Assistant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angbys@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前 육사 교수 용산지역대 안보초빙강연



카투사 신문 염태성

이동희 박사가 카투사들에게 강연하고 있는 모습

지난 1월 28일, 육군사관학교 교수 부장(예비역 준장)을 지낸 이동희 박사의 용산 지역대 안보초빙교육이 있었다. 메인포스트의 발보니 강당에서 열린 이날의 교육은 군대의 선배인 동시에 선비사상을 연구한 정치학 교수의 입장에서 카투사들에게 애국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동희 박사는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문리대와 동 대학의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연구하였다. 그는 한양 로터리클럽의 회

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여 2002년에는 회장직에 올랐고, 1995년에는 선비 학회를 창설하는 등 문무를 두루 겸비한 21세기의 선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날 강연의 주된 내용은 과거를 바탕으로 한 반성과 발전의 촉구였다. 그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선비 정신을 강조하고 선비가 가져야 할 8가지 덕목(청백, 근검, 후덕, 경효, 인의, 선정, 충성, 준법)을 제시하였다.

또 그는 손가락을 끊으면서 구국투쟁을 맹세하고, 하얼빈 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시모시자(是母是子 - 그 어머니에 그 아들)를 강조하였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형 선고에도 동요하지 않고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는 말을 옥중의 안중근 의사에게 전하였고, 이를 들은 안중근 의사는 항

소를 하지 않은 채 사형 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할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후,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이승만 박사를 예로 들면서 진정한 애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강연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이동희 박사는 내용 사이사이에 자신이 즐겨 외우는 시들을 프랑스어, 영어, 한문, 한글로 각각 유창하게 낭독하여 카투사들은 그의 언어능력과 암기력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그는 강연의 마지막에 카투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초빙강연을 끝마쳤다.

"미국과의 국가적 유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19세기 때와 같은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역은 바로 카투사 여러분들입니다."

2시간에 걸친 강연이 끝나자, 카투사들은 자신들의 안보 교육을 위해 부대를 방문해준 이동희 박사에게 큰 박수로 보답하였다. ■

이병 염태성

공 고

카투사 심행시를 모집합니다. 카, 투, 사 3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4월 6일까지 계급, 이름, 소속을 적어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시오. 많은 참여기 바랍니다. 우수 작품들은 4월 첫째 호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 kangbys@usfk.korea.army.mil

2004년 원숭이의 해

정초가 되면 누구나 올해는 무슨 띠의 해이며, 그 띠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한 해의 운수를 보는 풍속이 있었다. 이러한 십이지(十二支)의 띠동물은 매년 바뀌는데 올해의 경우는 십이지 동물중 여덟번째로 나오는 원숭이이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은 연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특히 그 동물이 자신의 띠일 경우에는 웬지 한 해가 특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는 내가 원숭이 띠인지라 다른 해와는 달리 2004년은 무언가 의미있게 느껴진다"는 미 2사단 702지원대 문현성 병장은 "이제까지 해운 것처럼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군생활을



카투사 신문 장승모

올해는 십이지신 중 여덟번째 띠인 원숭이의 해이다. 돼지꼬리 원숭이의 모습.

무사히 마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새해를 맞은 소감을 밝혔다.

원숭이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에 관한 확실한 문헌기록은 없다. 다만 조선 초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들어온 듯하다는 가설만 있을 뿐이다.

한반도가 원숭이의 서식지로 부적합하여 이들을 집할 기회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원숭이를 주제로 많은 예술품들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숭이 모습의 신라토우가 있는가 하면 신라 성덕대왕의 십이지상에는 원숭이가 완벽하게 남아있고, 또 도장의 꼭지나 연적 등을 원숭이 모습으로 빚어 구운 청자, 청화백자, 백자 등도 적지 않다. 옛 기록을 보면, 선사시대에는 우리나라에도 원숭이가 서식했다고 하며 '삼국유사'에는 이차돈이 순교했을 때 '원숭이가 매지어 울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리고 봉산탈춤과 양주 별산대 놀이에서는 원숭이가 과거승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배우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원숭이는 오랜 동안 우리 문화에 등장해왔다. 원숭이는 또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나라에서도 구전설화의 주인공 역을 맡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중국의 4대 기서 중



카투사 신문 장승모

원숭이는 예로부터 모성애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왔다. 사진은 한겨울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아누비스 개코 원숭이 한 쌍이 아기 원숭이들을 감싸안은 모습.

하나인 '서유기'나 고대 인도의 신화에서 원숭이 군대의 지도자인 하누만이 마왕에게 에인을 빼앗긴 라마신을 도와준 신으로 등장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로 손오공을 택한 사실 또한 원숭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원숭이해는 대체적으로 격변과 역동성을 띠는 특징이 있다. 갑신년인 1884에는 비록 '3일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1944년에는 일제의 막바지 식

민통치가 최고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24년 전인 1980년은 신군부가 등장한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난 과거는 2004년 한 해 동안의 많은 변화를 예상케 함과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해 개개인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네주기도 한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은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이 올 한 해에도 크고 작은 성취를 일궈내며, 올해의 주역으로 떠오르길 희망한다.

상병 장승모

카투사들의 한마디

군 입대 전 나의 생활!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수송부 상병 김준엽

입대 전 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라인 스케이트와 여행입니다. 시험 전날에도 도서관에 스케이트를 가지고 갔다가 새벽에 스케이트를 타던 중 큰 부상을 입고 시험을 못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대 두 달 전에 중국에 여행가서 현지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놀러온다고 해서 들뜬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PT와 중국어 공부로 바탕으로 제대 후 인라인을 타고 중국 여행을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육군부 상병 오재영

카투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일찌감치 휴학을 한 상태라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및 취미활동을 했습니다. 비트박스 활동을 하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쌓고 KTA에서 보게 될 PT 시험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인지 운전병이라는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군생활 초반에는 운전이 미숙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병 일은 저에게 기쁨과 보람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수송부 일병 황영민

저는 원래 일반 육군으로 입대할 예정이었고, 날짜까지 나온 상태여서 대부분이 그렇듯이 입대 전까지 시간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로 입대하게 되면서 입영시기가 늦어지고 시간 여유 생겨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며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병이 되어버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배치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운전 관련 여러 가지, 그리고 차량에 관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교육처 병장 김원형

입대 전에는 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교회 내 밴드 등에서 노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지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남는 건 의미 없는 게임 승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특별한 추억여행 등을 하지 못하고 게임이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젊은 시절에 후회없이 놀아서 즐겁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생각하며 다가올 미래를 군에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 리 군인들을 가르치 고 제식훈련을 시킬 미국 장교 한 사람을 구하노 라. 천거해준다면 그에게 아 국의 두 번째 높은 계급을 부 여하겠노라."

이는 대한제국의 고종황제 가 급변해가는 국내의 정세 사이에서 군의 현대화 필요성 을 절감하여 1883년 10월 조 정에 내린 명이였다. 그리고 고종황제의 이와 같은 요청은 미국이 외국에 대하여 처음으 로 군사지원을 제공한 효시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1888년 4월 7일 미국의 William McEntire 준장이 이끄는 세 명의 고문단이 '고 려국(Korea)'에 도착하여 군 사 업무단을 창설하게 된다.



한다. 김원형 병장에 의하면, 미 군 사병이 없는 까닭에 카투사 와 미군간의 교류가 다른 부대 에 비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미군들이 카투사들에게 우 호적이고, 군대의 딱딱한 조직 사회의 분위기보다는 수평적이 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카투사 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장교나 부사관이라고 하면 웬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합무단에서 카 투사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항상 카투 사들을 조직체의 당당한 일원 으로 보고, 친근한 태도로 대합 니다. 카투사들이 부대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도 이러한 카투사의 부대 내 위상 에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부단

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그 이후로 미국의 군사업무단은 대한 제국 국군의 현대화와 발전을 도모해왔 고, 1948년에는 주한 미 육군 군사 고문 단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된다. 이후에도 부대는 1949년 미 군사 고문단, 1971년 주한 미 합동 군사 지원단 등으로 개칭을 거듭해오다, 1991년 10월 현재의 주한 미 합동 군사 업무단(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이하 합무단)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이처럼 이번 호 부대탐방의 주인공인 합무단의 역사는 조선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명실 공히 한반도에 있는 부대 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부대이기도 하다. 합무단의 역사를 훑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합무단은 조선 말기 이후 현재의 우리나 라가 있기까지 그 역사를 함께 해왔고, 대한민국 육군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합무단은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군 기 관으로서, 주한 미 대사 직속의 대사관 대표팀의 일원으로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 행하고 있다. 합무단의 주요 임무는 태평 양사령부의 전구 안보협력계획 및 미 대 사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주한미군의 임무에 일조하는 등 한국에서 미국의 안 보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합무단

은 한국군의 현대화 및 군 발전을 지원하 기 위해 우리나라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미국의 무기체계 및 기술 획득, 교육 및 훈련 지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미 정부로부터 해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s)를 통한 무기 체계 직구매를 결정시에는 우리나라 국 방부를 돕는다.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우리나라 국방부와 각 군에 방위체계 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도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합무단은 한미 군비 협력 사업들, 즉 공동 개발 및 공동생산 활동 을 포함하여 양국 간에 협력을 통한 방위 산업 관련 연구개발 비용 분담과 이익 공 유를 추구하는 협력 사업들을 관리하 기 도 한다.

합무단의 카투사들은 세부적 으로 카투사 인사과, 미군 인 사과, 육군부, 공군부, 해 군부, 보급처, 수송부, 교육처, 국제협력처, 국방부 파견대, 조달 본부 파견대 등 총 11 개의 부서로 나뉘어 져 근무하며, 각 부 서들이 서로 협력 해 가며 합무단의 임무를 수행한 다.

교육처에서 근무하는 합무단 선임병 장 김원형 병장은 "교육처의 경우 한국 군 장교들의 미국 유학을 담당하며, 꼭 합무단을 거쳐야만 유학이 가능하다. 교 육처 외에도 합무단 내의 많은 부서들이 한미 동맹의 핵심부에 서있고, 따라서 이 곳에서 일하는 카투사들은 자신들의 업 무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 다"고 말했다.

"미 정부 사이에서 서류가 많이 오가 는데 이러한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주 업 무"라는 조달본부 파견대의 이성용 일병 역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없 으면 부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생 각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업 무에 대한 자부심을 밝혔다.

합무단의 가장 큰 특색 은 사병이 모두 카투사 라는 것이다. 미군들은 모두 부사관이나 장교 이고, 상당수의 민간인 군무원들이 카투사들 과 함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구 조적 특징은 부대 분 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 친다고

보통 각 부서에 카투사가 한 명씩 근 무하기 때문에 이들이 휴가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부서의 임무 수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카투사는 부 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 특히 부대의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 인 원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한다.

미군 인사과의 Edward Hintz 하사 는 부대에서 차지하는 카투사의 역할에 대해 "카투사들은 합무단 내에서 운전업 무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번역과 통역, 행정업무 그리고 대외 단체들과 교류하 는 데에도 교량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 다. 합무단의 카투사들은 모두 뛰어난 능 력의 소유자"라며 부대의 카투사들을 추 켜세웠다.

공군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박정미 씨 역시 카투사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들과 함께 근무 하는 소감을 말했다.

"합무단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교들은 대다수 경영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 다. 이들과 더불어 원활한 영어 구사 능 력으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카 투사들을 곁에서 보면 웬지 뿌 듯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 쪼록, 합무단 카투사들 이 이 곳에서의 경 험을 토대로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투사들이 부대의 주축을 이루는 까닭에 합무단장 John Freund 대령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카투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 격려를 한다고 한다.

"합무단의 카투사들은 모두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는 "한번도 그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다. 문화나 언어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이들의 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부대 내에서 미군들과 잘 융화되어 근무한다"고 말해 카투사들에 대한 그의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는 또 카투사들에게 군생활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카투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카투사 신문 장승모

한국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이들이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카투사들은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부대 동료인 미군들과 많은 경험을 함께 하여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값지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합무단은 주한 미 대사관 소속이라는 편제와 또 업무의 특성상 다른 부대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일과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합무단은 행정병의 경우 매

일 아침 8시에, 운전병의 경우는 7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 반에 일과를 마친다. 이는 주한 미 대사관의 업무 시간에 따른 것인데, 업무가 아침 일찍 시작하는 이유로 합무단 카투사들은 매일 아침 PT를 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일과를 PT 시간으로 정하여 모든 부서의 카투사들이 함께 모여 PT를 한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의 카투사들에게는 익숙한 써전스 타임이 합무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부대의 미군들이 모두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합무단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색은 트레이닝 홀리데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미군들과 카투사들은 미국 휴일의 경우 트레이닝 홀리데이를 포함해 나흘의 연휴기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합무단은 주한 미 대사관에 예속되어 그 일과 스케줄을 따르기 때문에 이날에도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그리고 김원형 병장의 말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 예하의 합무단 카투사들은 주한미군이 주최하는 보드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부대는 매 분기별 자체적으로 보드를 열어 우수 카투사를 선정하고 부대의 사기를 높인다고 한다.

합무단은 여러 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그만큼 자부심도 강하고 내부 결속력이 대단하다. 카투사들을 포함한 합무단 부대원들은 종종 주한 미 대사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해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티를 빌어 부대원들도 단합을 다지기도 한다고 한다.

김원형 병장은 "많은 카투사들에게 있어서 파티라는 것이 조금 생소한 것이 사실인데, 가끔씩 파티를 다녀오면서 외국 의 파티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그리고 합무단 부대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소풍을 가서 체육대회를 열거나, 스키장이나 불령장에도 가끔 부대 차원으로 가는 등 부대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합무단은 대외 활동의 일환으로 일 년에 4회 정도 서울 상계동에 위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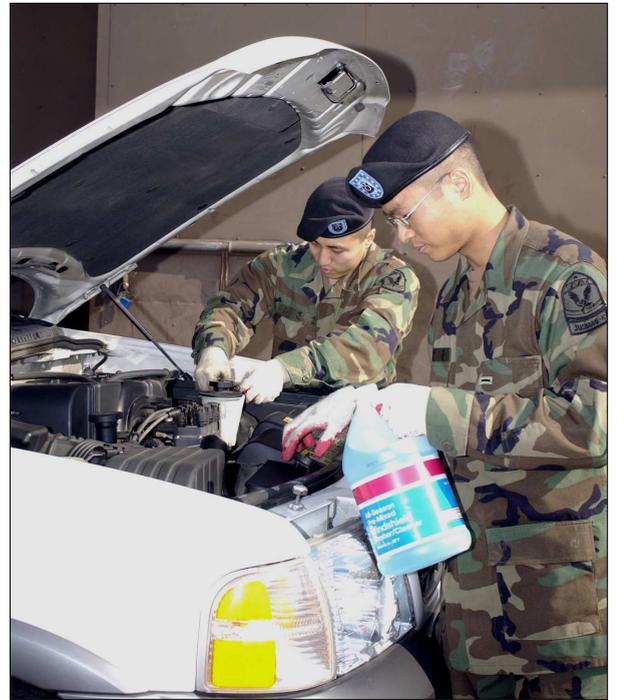
지한 쉼터 요양원을 방문한다고 한다. 쉼터 요양원은 미혼모의 자녀나 정신지체를 위한 복지원으로, 합무단 부대원들은 이들을 직접 방문해 공연을 보여준다거나 선물을 증정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 또, 부대 카투사들은 PX 등에 모금함을 설치하는 등 기부금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쉼터 요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수송부의 조병욱 병장은 "군에 들어와 이렇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다. 요양원을 찾아 직접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만나보고 나자, '이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그 소감을 밝혔다.

기자의 사무실과 가까이 닿아있는 합무단이었지만, 항상 금급증만 가득 품고 지나친 곳이었기에 이번 부대 탐방은 그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 카투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

고 우리의 능력이 한국군의 발전과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새삼 깨달았다.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번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뿌듯한 마음으로 가슴을 펴고 부대의 문을 나설 때까지, 모든 카투사들의 건투를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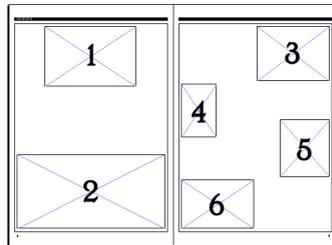
상병 장승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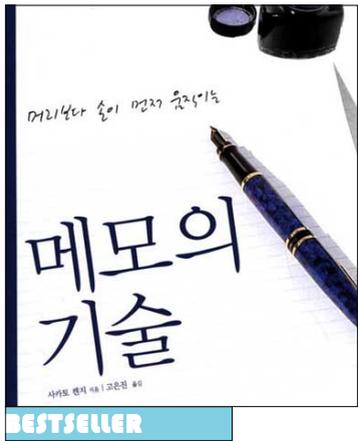
카투사 신문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



1. 육군부장 Howard McDaniel 중령으로부터 월단위 계획 브리핑을 듣고 있는 육군부 오재영 상병
2. 합무단 건물 앞에 서있는 설립 50주년 기념비
3. 쉼터 요양원을 방문한 합무단 카투사 인원과 미 인사과 Edward Hintz 하사(오른쪽)
4. 보급처 소속의 김웅택 일병이 합무단 창고에서 화생방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5. 수송부의 조병욱 병장(왼쪽)과 박수호 이병이 합무단 Motor pool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모습
6. 수송부의 김준엽 상병이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모습



메모의 기술

사카토 켄지 / 해바라기

정보화 시대엔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가 아니라 정보를 누가 먼저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 이때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메모의 힘. 이는 두뇌가 기억해야 할 짐을 메모에 맡기고 나머지 두뇌를 창의적으로 쓴 덕분이다. 이 책은 메모의 기술과 함께 협상시, 상사전달용 등 상황별 메모 요령, 또 인맥관리나 생각을 정리할 때의 메모법 등을 상세하게 지도해주는 실용서이자 자기계발서이다.



WEBSITE

피디안

www.pidian.com

뛰어난 휴대성과 성능으로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의 사용자 커뮤니티이다. PDA 관련 소식은 물론 각 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맞는 PDA를 고르는 방법도 알 수 있으며, 여러 제조사의 제품들에 대한 상세한 리뷰도 볼 수 있다. 게시판의 활성화도 잘 이루어져 있어서 사용자들의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도 부담 없이 익숙해질 수 있다.

■ 기획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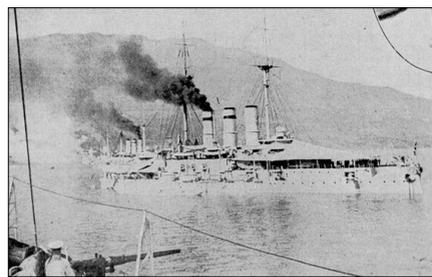
100년 전 이때 우리 나라에선?

- 비극의 역사, 발전의 계기로 삼길

지난 2월 8일은 주권 국가의 영토에서 그 국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전쟁이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의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러일전쟁.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던 러시아와 일본의 공통의 사냥감이 되었던 조선의 영토는 그렇게 그들의 싸움터가 되었고, 전쟁의 승리가 된 일본은 조선 땅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거점을 마련하였다. 물론 우리에게선 분명 치욕스럽고 잊고 싶은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세계화라는 허상 속에서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이때,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러일전쟁의 뒤에는 러시아와 일본뿐만이 아닌 그 당시 세계 지배의 야욕을 펼치던 강대국들의 치열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극동아시아의 광활한 땅은 강대국들의 입맛을 당기는 먹이었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중국 영토의 분할에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견제와 이해관계에 근거한 동맹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극동 지역의 영토에 대해 영국, 미국 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라는 열강의 대항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1900년 청의 의화단사건 진압에 가담한 일본은 뒤늦게 이러한 대항관계에 가담하게 되었고, 러시아의 견제를 목적으로 1902년 1월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은 일본은 러시아와 명확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노시베 섬에 기항중인 러시아 함대

성하게 된다. 만주의 독점적 지배와 압록강 연안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러시아에 대해 일본은 여러 차례의 교섭을 통해 극동지역 지배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1904년 2월 대 러시아 개전, 국교단절을 선언하고, 8일 육군 선발대가 한국의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향하고, 한편으로 뤼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한다. 이것이 러일전쟁의 시작이다.

전쟁은 육지와 해상에서 모두 일본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육지에서의 전쟁을 보면, 4월 하순 한국에 상륙하여 북상한 일본 제 1군은 5월 초 압록강 연안에서 러시아군과 충돌하여 격파했고, 같은 달 랴오둥반도에 상륙한 제 2군은 난산, 다렌을 점령하고 뤼순을 고립시켰다. 다시 6월에는 만주군 일본총사령부를 설치하고 15개 사단을 동원하였다. 8월 랴오양 부근에서 양국 군이 첫 번째 대규모적인 접전을 벌였고, 10월의 사허후이전투, 1905년 1월의 헤이거우타이전 등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모두 승리하였다. 해전



황해의 해전에서 포탄을 맞고 포트 아서(뤼순)에 계류중인 러시아 전함 쟈자레비치에서도 뤼순의 러시아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을 피하였으나, 8월 황해에서 일본 해군의 총공격을 받고 항구 안에 봉쇄 당하였다. 육지전에서의 패배를 해전에서 만회하려 하던 러시아는 로제스트벤스키 지휘하의 발틱함대를 회항시켜 5월 27, 28일 대한해협에서 대해전을 전개하였으나, 도고 헤이하치로가 이끄는 일본 연합함대에 격파되어 전멸했다.

계속되는 패전으로 사기가 침체된 러시아는 었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에서도 농민과 군대의 폭동이라는 혼란 상황을 겪게 되고 결국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 1905년 8월 10일 사태를 지켜보던 미국, 프랑스 등의 강대국들은 승전국 일본의 만주 단독점령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국 뉴햄프셔주의 군항도시인 포트머스에서 미국대통령 T. 루스벨트의 알선으로 강화회의를 주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체결되게 된 포트머스 조약은 일본의 한국지배권 확립과 러시아의 남사할린 지역의 할양 등을 골자로 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속국으로 삼을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진 두 열강과의 전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한 일본은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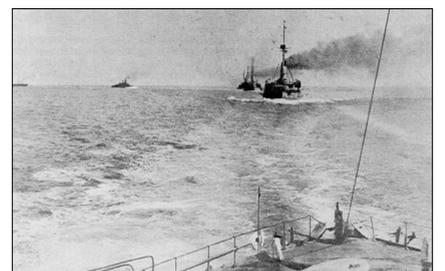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 물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는 충분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대응이었다. 1904년 1월 23일,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한달 여 전에 국외중립선언을 하였으나 국력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중립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였다. 외교정책의 허점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세를 보이자 1904년 5월 18일 러시아와 체결하였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일본은 같은 해 8월 22일 외국인용병협정을 한

국과 체결, 한국의 외교권을 거의 박탈하는 고문정치를 성립시켰다. 일본이 전쟁에 승리하기 훨씬 이전에 자국의 지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허를 범한 셈이다. 척사와 개화의 논쟁 속에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또한 35년간의 치욕스런 식민국 신세를 겪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이 일어난 지 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1945년 주권을 회복하였고 그 후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도약에 성공하였으며, 21 세기가 된 지금은 각종 IT 산업에서 선두에 서서, 다른 열강들과 경쟁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가 겪은 고초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초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세계화를 통해 나라간의 국경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국가간의 숨겨진 경쟁은 더욱 더 첨예해지고 있는 지금, 외교적 허점과 국제경제 파악의 실패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어려운 처지로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때의 교훈을 되새겨 보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추슬러야 할 것이고,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

이병 염태성



러시아 함대가 뒤늦게 뤼순으로 향했지만, 요새는 이미 함락된 후였다.

■ 카투사 기고문

한진이와 조던의 한국여행기

5. 축제, 그 향유의 언어 : 즐겁게 혹은 감동적으로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하이서울페스티벌, 난타공연, 한강시민공원

넘실넘실, 떠들썩떠들썩, 와글와글, 우르르팡팡, 둥둥탁탁, 와르르, 짹짹, 흔들흔들, 빙글빙글, 딸그락딸그락, 너울너울, 가웃가웃, 건들건들, 곰실곰실, 키득키득, 기우똥기우똥, 까딱까딱, 까르르, 쿵당쿵당, 하하, 깔깔, 부르릉, 야아~, 꺾꺾꺾, 툭툭툭, 덜컹덜컹, 뚜뚜뚜, 퐁퐁, 번쩍번쩍, 따르릉, 땡땡, 웅~훅, 재잘재잘, 딸랑딸랑, 호호히히, 깜박깜박, 펑펑폭폭, 땡글땡글, 남남, 보글보글, 요모조모, 알록달록, 아슬아슬, 데굴데굴, 하늘하늘, 철썩철썩, 조마조마, 두리둥실, 알콩달콩, 벌컥벌컥...

위에 나열해본 단어들은 축제의 현장을 나름대로 그려본 우리의 흥내말들이다. 달리 말하자면 향연의 의성어, 의태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먹고 마시며 참으로 즐겁게 어울려 노니는 모습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축제(祝祭/festival)라는 말은 라틴어의 '종교의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페스투스(festus), '일하지 않다'라는 페리에(feriae)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종교적 의식에 들어간다는 뜻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축제는 예로부터 우리 삶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 생산과 노동의 측면과 함께 분배와 여가의 측면은 경제학적으로 사회발전의 커다란 두 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저 먼 농업사회로부터 지금의 정보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되며, 인간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흥과 어울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능인 것이다. 세계사적으로도 어느 문명이나 풍년과 안전을 위해 그들의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현재 살아가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고자 하는 의미의 행사들이 있어왔다. 미국 Thanksgiving Day, 독일 Oktofest 등이 그런 좋은 예라고 하겠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자면 부여, 고구려 등지에서 이미 가을철에 풍작과 추수를 감사하는 영고, 동맹 등의 제천행사가 있었으며, 연등회, 팔관회 등의 각종 범국가적 행사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단오, 추석, 대보름 같은 우리의 세시풍속과 전통적 명절을 기념하고, 함께 어울리기 위한 시간들은 그동안 수없이 진행되어왔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 즐거움의 시간들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열렸던 2002 한일 월드컵은 지구촌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며 세계와 하나 되고, 미래로의 힘찬 도약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역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던 대국민축제를 통해 우리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한걸음을 크게 내딛었다. 많은 경우 문명사회는 축제라는 양식을 통해 그 사회의 결속력 강화와 갈등해결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듯 한국사회도 각곳의 축제문화를 활성화시켜 시민

사회의 성숙을 이룩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현장을 향유의 주체로서 우리들이 직접 참여해왔다.

처음 나눌 이야기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다. 세계 최초의 종합문화박람회로서 '천마의 꿈 - 함께 그려나 다르게'라는 취지 아래 열린 이번 엑스포는 세계 성문화예술전, '에밀레-천년의 소리' 주제공연, 세계꼭두극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곳들은 '세계신화전'과 '세계벼룩시장' 그리고 '기파랑 영상물'이었다.

'세계신화전'에서는 각국의 신화들을 창조신화, 홍수신화, 영웅신화 등 유사한 내용을 가진 것들끼리 주제별로 잘 묶어 전시했는데, 무한한 상상력은 물론 우리 삶의 원형과 문화의 원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나 그리스 로마신화 같은 경우에는 조던도 많이 알고 있어 영어로 설명을 듣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참 좋았던 것 같다. '세계벼룩시장'에서는 정말 사람구경, 각 나라의 풍물구경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각 대륙에서 건너온 귀중한 물건들이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TV에서만 보던 민속품들과 공예품을 보니 참으로 흥미로웠다. 뉴질랜드의 항해에 관한 물건들과 러시아의 우주관련 기념물들, 그리고 페루의 민속품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반면에 조던은 아프리카의 토속품들과 동남아시아의 무기류들, 그리고 인도의 불상에 관심이 많아 몇점 구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화랑영웅 기파랑' 영상물은 기파랑과 신비의 피리 '만파식적' 이야기의 모티브가 담긴 설화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재미와 감동을 둘 다 얻을 수 있도록 잘 만든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과거에 살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와 똑같이 꿈과 희망을 가졌던 젊은 화랑들에 대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엔 호반의 도시 춘천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오래전부터 춘천은 지리기술적, 정책적, 교통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한다. 그래서 국제마임축제, 국제인형극제, 국제태권도

대회, 국제마라톤대회, 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좋은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다. 고요한 호수와 소양강댐이 만들어 내는 신비한 호반의 도시적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막국수와 닭갈비만의 명소는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조던과 나도 그곳에서 점심으로 닭갈비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춘천 주변에 가득한 문화적인 볼거리들로 더욱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춘천을 찾은 그날은 마침 눈이 내려 더욱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세계애니메이션축제가 열렸던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우리는 만화적 언어가 주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문화권이 서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펼쳐지는 삶을 좀 더 의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마임축제와 인형극제에 꼭 와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서울로 향했다.

지금 한국은 지방화시대 활성화와 진통에 대한 관심 및 재조명,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축제들이 많은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서울은 이런 축제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많은 가능성들이 실험되고 있다. **난타공연**의 성공이 그러했고, 시청광장에서 이루어진 월드컵 응원봉이 그러했다. 조던도 직접 난타를 관람하며 잘된 짜임새와 독특한 소재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못지 않은 분위기와 열기를 느꼈다고 말했으며, 월드컵 응원 당시의 사진을 보고 광화문일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오래동안 준비해온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한 것 같다. 이렇듯 이번 축제는 기존의 산발적인 축제들을 한곳에 모으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개념의 시민참여적인 축제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 아주 고무적이다. 봄엔 조선통신사행렬제현과 한중일 사자춤대회, 미디어아트프로젝트, 가을엔 정동의 문화축제와 올림픽공원에서의 월드 사이버게임대회 그리고 경희궁에서 열린 세계드림페스티벌도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흥겨운 어울림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도 조금은 추운 날씨에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던 하이 서울 한강마라톤대회와 국제 불꽃놀이축제에 참가하여 향유의 주체가 되어보기도 했다. 이렇게 축제는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나와 조던이 이렇게 어울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

1통신여단 501통신중대 병장 이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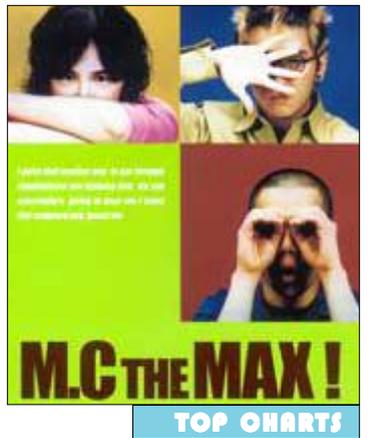


머나먼 사랑

감독: 마틴 캠벨

주연: 안젤리나 졸리

이디오피아에서 기아 난민 구호사업을 하는 영국인 의사 닉 칼라한은 영국 기아 돕기 재단의 자선 파티장에 나타나 자선 사업가들의 위선을 질타하며 그들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다. 재단 이사장의 며느리인 사라 조르단은 닉이 파티장에 데려온 이디오피아 소년의 참혹한 물골에 충격을 받고는 닉이 활동하는 이디오피아 캠프를 찾아가는다. 영국으로 돌아온 사라는 UN 산하 국제 난민 고등판문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다.



사랑의 시

M.C The Max

- 2.Hot 뜨거/원타임
- 3.광화문 연가/이수영
- 4.I am missing you/휘성
- 5.그게 정말이니/장나라
- 6.외워 두세요/성시경
- 7.천사/서영은
- 8.사랑은...항기를 남기고/Tei
- 9.갈색머리/윤건
- 10.여전히/유리상자
- 11.Let me dance/Lexy
- 12.사랑할거야/윤도현 밴드
- 13.알면서/비

일 반적으로 어떤 연예인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은 그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수나 인터넷에서의 관심도라고 할 수 있다. 만능 엔터테이너인 서민정씨는, 지난 설에 8개 프로그램의 MC를 맡아 기사화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고, 인터넷에서도 어디에서나 빠지지 않는 인기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의 톡톡 튀면서도 겸손한 그녀의 태도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고, 사진 촬영이 끝날 무렵 사인을 받으러 다가온 두 명의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매우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짧지만 즐거웠던 서민정씨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오면서 기자는 왜 그녀가 대중들에게 그렇게 사랑 받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민정이고요, 1979년 7월 11일에 태어났어요. 지금은 이화여자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제가 대학교 때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어요. 그러던 중 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어느 방송국 스튜디오를 빌려서 했는데 우연히 그 방송국의 PD님이 저에게 케이블 TV의 VJ에 한번 지원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별로 지원할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가 지원한다고 하길래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같이 지원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도 그 때 합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데뷔하게 되었어요.

-최근 근황

지금은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MC 등의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3월부터는 연기도 할 것 같아요. 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닮고 싶거나 존경하는 연예인

저는 이경규 아저씨를 가장 존경해요.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건강보감'이라는 코너의 MC를 했었어요. 그 때 있었던 해외촬영에서 밤 촬영도 많고 다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늦으시는 적이 없이 30분씩 일찍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시곤 하셨어요.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베테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몸을 불사르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취미나 특기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흥행작이든 아닌든 개봉하는 영화는 거의 다 보는 편이에요. 물론 시간이 잘 안나기는 하지만, 한가할 때는 또 굉장히 한가한 편이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이고,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는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는 영화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저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매우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는데 눈에 안 띄는 학생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도 잘 못

가 NG가 난 적도 많아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군인 청취자들이 많은지

의외로 정말 군인 청취자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밤 12시에 시작하



카투사 신문 엠태성

는 프로그램이라서 못 들으실 줄 알았는데, 몰래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예약녹음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은 어떤 청취자 분이 군용식량을 보내주셔서,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군용식량을 먹어봤었는데, 맛도 신기했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맛이었지만 약간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군인이 멋있어 보일 때

제가 예전에 어떤 군부대에 방송을 하러 갔었는데, 그 때 본 군기가 들어간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누가 뭐래도 군인들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10년이나 20년 후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저는 원래 평범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연예인이 되긴 했지만, 가끔은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결혼도 평범한 사람과 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 학부형 입장에서 학교도 가보고, 그런 것이 저의 꿈이에요.

-외국에서의 체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영국에 가게 되어서, 중학교 3학년 때에 돌아왔어요. 거기서 학교도 다녔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영어는 안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다지 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형을 설명하자면

저는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해요. 가볍거나 그렇지 않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성격도 얌전한 편이고 대학교도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는 남자친구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빨리 제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카투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제 동생이 이번에 카투사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익숙해요. 카투사 하면 남자다운 면서도 지적인 이미지가 생각나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지금 겨울이라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카투사 분들은 미군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힘든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씩씩하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해요. 군인 분들은 웃는 모습을 본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웃을 때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

이병 엠태성

서민정



수줍음이 귀여운 미소!

했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었어요. 너무 조용하고 얌전해서, 대학교 때에는 여자 선배님들이 '새색시'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어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가장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지금까지 MC, VJ, DJ, 탤런트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만 만능 엔터테이너이지 제대로 자리 잡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신인이기도 하나까 특별히 정한 것 없이 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앞으로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저의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얌전하다 보니까, 연기에서는 이와 반대로 발랄하고 터프하고 씩씩한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어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도 연예인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소에 좋아했던 다른 연예인들을 만나면 너무 신기하고 사인도 받거든요. 김용만 아저씨, 김제동 오빠, 유재석 오빠의 사인을 받았던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생방송인데도 계속 웃다



프로필

생년월일: 1979년 7월 11일

키: 164 cm 몸무게: 48 kg

취미: 영화 감상, 뮤직 비디오 보기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3학년 재학중